

언어 전쟁 : 한국어 대 영어

이병혁
(서울시립대)

1. 머리말

오늘날의 세계는 미국이라는 초강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단일한 세계체제이다. 미국주도의 세계적 정보망의 구축은 미국이 생산한 정보, 미국적 사고방식과 일상생활의 문화, 그리고 영어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세계화, 정보화라는 말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 조류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영어 사용 인구의 급격한 팽창이다.

1990년대 초반 7억 내지 10억 정도가 영어를 사용했다고 하니 21세기에 들어와 영어 사용 인구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음에 틀림없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첫째,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 둘째, 영어를 제2의 국어, 즉 국내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셋째, 영어를 외국어, 즉 국제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뿐 아니라, 그것을 제2의 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김영명, 2000, 17).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어 팽창이 왜, 어떻게 일어나며,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들이다.¹⁾ 언어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고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를 사회·정치적 현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본고에서는 세계 속에서의 영어 위상을 '영어 제국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뒤, 한국 속에서의 영어 침투를 영어 공용화를 통해 살펴본 다음, 한국에서의 언어현실

[주요어] 세계화, 정보화, 인터넷, 언어분화, 문화, 영어지배력, 영어제국주의, 언어전쟁, 영어 공용화, 언어생태계, 미국의 세계제패

1) 이에 대해서는 김영명, 「세계화와 언어문제」,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제 20회 국제학술연구발표회(2000. 11. 10)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했음.

을 ‘언어전쟁’의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언어전쟁이라는 개념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로부터 빌렸다(Roland Barthes 1989, 106-110). 바르트에 따르면, 언어 전쟁이란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다. 언어전쟁은 사회가 차이를 갈등으로 변형시키는 곳에서 발생한다. 사회교류라는 차원에서 볼 때, 언어란 대규모 언증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언어분화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 언어분화가 계급분화와 엄밀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언어전쟁이란 주체들의 전쟁이 아니라, 대립적인 언어체계들의 전쟁이라는 점이고, 셋째 언어분화는 의사소통 배경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현대사회에서 언어분화는 일차적으로 권력과 연관되어 일어난다. 로빈 레이코프(Robin Lakoff)도 20세기말 권력과 지위 투쟁이 언어전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Robin Lakoff 2000). 언어통제는 모든 권력의 기반이고, 따라서 싸울 가치가 있는 대상이다.

2. 세계속의 영어 위상 : 영어 제국주의

지금 세계는 가히 영어 제국주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영어 제국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언어 생태 패러다임에서 볼 때, 세력이 약한 언어들에 쇠퇴시키거나, 소멸시킨다는 사실에 있다. 또 언어의 소멸은 아니더라도 세계 언어들 사이에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예사일이 아니다. 이러한 언어 생태계의 위기는 미국의 세계 제패가 가속화되고, 정보화의 심화로 전 세계적인 영어 침투가 더 쉬워짐에 따라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계언어에 관한 총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1년 2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내놓은 보고서(김종락 2001, 9-11)에 따르면, 지구상에 현존하는 언어는 5,000~7,000종으로, 이중 4,000~5,000종이 소수 토착언어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대략 3분의 1, 즉 32%가 아시아에서 사용되고 있고, 30%는 아프리카, 19%는 남서태평양, 15%는 아메리카에서 발견됐으며, 유럽은 3%가량을 차지한다. 토착언어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파푸아뉴기니로, 847종에 이르는데, 이곳의 생태적인 다양성이 언어의 다양성과 비례하는 듯하다. 그 다음으로 토착어가 많은 지역은 인도네시아(655종), 나이지리아(376종), 인도(309종), 오스트레일리아(261종), 멕시코(230종), 카메룬(201종), 브라질(185종), 자이르(158종), 필리핀(153종) 등이다.

이 자료는 토착언어의 절반이 넘는 약 2,500종은 사용자가 기껏 수 천명이하로, 당장 소멸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한다. 사용자가 100~1,000명밖에 안 되는 언어가 1,000종이 넘고, 553종의 언어는 사용자가 100명도 안 된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연구자는 사용자가 1만 명이 넘는 언어가 1,000종에 지나지 않음에 비춰, 향후 1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90%가 사라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견조차도 지나치게 안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추세는 불과 10여 년 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특히 영어의 지배력 확장은 괄목할 만하다. 언어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몇몇 대형언어, 그 중에서도 영어의 '돌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어는 지난 몇 년 동안 정치·경제는 물론, 학문에서도 국제어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현재 21개국에서 유일한 공식언어가 되었고, 또 다른 16개국에서는 다른 언어와 함께 공식어로 사용되고 있다. 120여 개 국에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어방송을 들을 수 있다. 스포츠, 컴퓨터, 팝 뮤직, 자연과학 영역에서 영어는 지배적이며, 인터넷의 확산은 영어의 이런 지배력을 전 영역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영어를 잘 구사하면 직업의 기회에서 유리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영어를 못하면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영어 제국주의의 확산은 세계의 다양한 정신과 문화가 성장할 토대를 잃게 한다. 획일화된 단일 언어, 즉 영어의 지배는 '앵글로 색슨화' 이데올로기라는 정신적 전제주의의 모습이다.

3. 한국 속의 영어 위상: 영어 공용어화론

1945년 분단된 채 광복된 이후 남한, 즉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미국의 군사보호아래, 모든 면에서 미국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왔다. 광복 초기에는 일반 민중에 대한 영어의 영향은 '언어놀이' 수준에서 인구에 회자되다가(예를 들면, '기브 미 초코렛', '추잉 껌', '선 어브 비취', '갓땀' 등), 196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언어게임' 수준으로²⁾ 영어의 영향이 강화되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어가 제1외국어로 자리잡았고, 입학 내지 취직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그 밖에 선진 과

2)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언어게임'의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 연구업적으로 고길섭, 『우리시대의 언어게임』, 서울: 토담, 1995을 들 수 있다.

학·기술, 경제, 학문도입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 개인컴퓨터 보급과 함께 인터넷이 확산되고, 1990년대에 들어와 세칭 세계화, 정보화의 조류 속에서 영어는 한국인의 출세를 넘어서서 생존수단이 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을 '언어전쟁'의 단계로 규정하고자 한다.

먼저 전반적인 전황(戰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모두가 영어의 바다속에 빠져 허우적댄다. 이제 겨우 입을 열기 시작한 아기부터 은퇴를 앞둔 중·노년까지 영어의 광풍속에서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없다. 그 속에서 교육이 죽고, 사고와 창의성이 마르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부질없이 스러진다. 그러나 어찌랴. 실제 효용성이 어땠든 혀를 굴려야 공부깨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비리그에 입학 허가를 받을 정도의 토플(TOEFL)·토익(TOEIC)점수를 받아야 변변치 않은 직장이라도 취직이 가능한 것을. 어느새 영어만이 유일한 능력이 돼버린 우리 사회에서 이 끔찍스런 영어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진다(한국일보, 2001. 10. 23. 33면).

이제부터는 부문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보수적인 친미적 전문관료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부분의 경우, IMF이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아예 한국어 과목은 빼버리고,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근·현대사는 선택과목으로 돌려버렸다. 영어는 필수로 하면서, 자기나라 언어인 한국어는 시험도 보지 않는 공무원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5월에는 제주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육성하면서 영어를 제주의 제2 공용어로 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제주도 특별개발법'을 입법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통계청 등 일부 정부부처가 2000년도부터 영어실력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서기관, 사무관등 승진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방부는 2003년부터 장교 진급심사에 영어능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한국일보, 2001. 10. 23. 24면).

두 번째로 지배적인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ideological apparatus of state)인 각급 학교의 경우, 교육당국이 '사 교육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며 1997년부터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과목에 포함되면서, 영어조기교육 붐이 본격화되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토익열풍이 불고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는 특수목적고 입학이 목적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각종 영어관련 경시대회 입상을 목표로 하는데, 그 이유는 수능성적과 상관없이 토익, 토플 고득점자 위주로 영어특기생을 선발하는 대

학에 지원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다.

대학의 경우, 상당수 대학에서 토플이나, 토익에서 일정한 점수를 얻지 못하면 졸업을 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5년제'가 돼가고 있다.³⁾ 너나 할 것 없이 최소한 1년 씩은 영어연수를 떠나기 때문에 4년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취급된다.

세 번째로, 역시 지배적인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인 대중매체와 언론의 경우, 라디오나 TV의 영어강좌나 강사는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모든 대중매체에서는 온갖 형식의 영어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고, 일부 신문은 자사가 개발한 영어 실력 검사를 팔기 위해 영어공용어를 지지하고 있다. 그 밖에 인터넷에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어학습기법이 소개되어 있다.

네 번째로, 경제부문의 기업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의 80%이상이 영어로 돼 있어 영어를 못하면 지식정보사회에 낙오자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승진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소위 '국경 없는 경제시대'를 맞아 외국인과의 직·간접 교류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출근 전, 업무중, 퇴근 후까지 영어학원, MP3, 또는 워크맨 학습, 개인교습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젠 기업에서 영어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퇴출 0순위다.

다섯 번째, 영어교육에 대한 강박증은 '교육이민'의 증가로 나타나기도 한다. 2000년 한국을 떠나 외국 유학중인 초·중·고교생 수가 1998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만 3백24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행한 '2000학년도(2000년 3월~2001년 2월) 출국 학생 수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1만 6백40명, 중학생 5천9백74명, 고등학생 3천5백31명 등 2만 1백45명이 해외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9학년도의 1.9배에 달하는 것이다(중앙일보, 2001. 9. 15).

조기 유학의 원인과 관련한 학부모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영어능력과 특기를 키우기 위하여'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2001학년도 KEDI, 교육정책 포럼,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 유학").

3) 최근 대학가에 이런 영어제일 현상을 반영하는 '성골·진골·6두품구분법' 등 우스개가 유행하고 있다. 즉 조기 유학으로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면 성골, 영어권 국가에서 유년을 보내 영어에 걱정이 없으면 진골, 국내 명문대에서 죽어라 공부해서 높은 토익점수로 좋은 직장 들어가면 6두품이 된다는 식이다.

이러한 사회 각 부문과 코흘리개부터 주부, 심지어 노인들에게까지 불어닥친 영어 열풍은 오늘날의 한국인에게 '영어강박증' 증세를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증세에 대응하는 주장이 바로 '영어공용화'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98년 6월 소설가 복거일이 『국제어시대의 민족어』(문학과 지성사)라는 책에서 영어 공용어화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 했다. 복거일은 장차 '지구제국'에서 중심부로 진출하려면 영어를 모국어로 삼아야 하며, 그 전 단계로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쓰자고 제안했다.

제2차 논쟁은 1999년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자유기업센터'가 「한국소설가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영어 공용어화 문제 토론회가 계기가 됐다.

제3차 논쟁은 2000년 1월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개인 자문기구인 「21세기 일본 구상」이 제출한 보고서에 영어를 일본의 제2공용어로 하자는 제안이 보도되면서 국내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어 2001년 3월 일본 아사히 신문 출신의 저널리스트 후나바시 오이치시가 쓴 「나는 왜 영어공용어론을 주장하는가」라는 책이 한국에서 번역, 출간되면서 잠시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본이 경제대국이면서도 영어구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복거일과의 인터뷰까지 실었다.

제4차 논쟁은 2001년 5월에 나온 제주도 영어공용어화 추진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한국일보, 2001. 5. 18. 7면).

미국 등 세계중심부의 압력에 속절없이 굴복한 정부가 앞장서서 영어에 문호개방을 하게 되고, 대중들은 나름대로 정부의 개방과 구조조정의 강박증에 자연스레 감염되어, 살아남기 위해서나 더 높은 계층적 상승이동을 위해 영어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IMF체제이후 여러 차례 제기된 영어공용어화는 기능주의적 지식인들이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을 재빨리 간파하여 실리와 현실적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영어제국주의자들의 정책에 자발적으로 내적 호응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한국어는 한국 땅에서 영어와의 일전이 불가피해졌다.

4. 언어전쟁 : 항전이나? 항복이나?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단순한 언어분화는 권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권력에 의한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각광을 받는 언어를 권

력 지배적 언어(encratic languages)라고 부르며, 거기에 대항하는 언어를 탈-권력지배적 언어(acratic languages)라고 부른다(1989, 107). 우리는 문화와 정치적 선택에 의해 우리 세계와 역사가 강요하는 특정언어들 가운데 하나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상황 배제적이고, 소외되지 않은 언어를 통한 만족을 단념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손에 관여와 만족이라는 두 개의 고삐를 쥐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1989, 109).

영어가 부와 힘과 지위를 보장하니까, 한국인은 영어에 대한 환상까지 가지게 된다. 영어를 쓰면 세계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고, 영어를 쓰면 백마 탄 기사가 영어로 사랑을 속삭이면서 다가올 것 같다. 이런 환상을 영어 판매원들은 오늘도 내일도 부추기고 있다.

그럼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전쟁의 전선(戰線)을 한국내의 영어산업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영어산업'은 국내 경기침체가 심화하면 할수록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이상업종이다. 취업난과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칼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이고도 효과적 수단이 바로 영어인 까닭이다. 여기에 2000년도부터 일기 시작한 조기 영어교육 열풍까지 가세해 학원, 교재, 각종 시험 응시료, 해외연수 알선 등을 합친 영어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최소한 1조 억은 거뜬히 넘을 것이라는 업계의 추산이다.

학원수만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전국에 2,944곳이 개원중이라는 교육부의 공식 집계가 나와 있고, 2001년 들어와서 1만이 넘었다고 보고 있다. 보습학원까지 더하면 2만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출액은 5,000억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또 시판중인 영어교재(사전 제외)는 무려 9,616종으로 2,000억~3,000억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영어 교구재 및 토플, 토익, 텀스 등 이른바 '3T시험시장'은 최근 1~2년간 가히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 분야다. 만 2세부터 4세의 유아들이 집에서 놀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장난감, 단어카드, 스티커, 비디오 등 교구재 시장은 2,500억 ~ 3,000억으로 1999년의 2배가 넘었다. 3T시험에는 2000년에 84만 명이 응시해 약 350억 원이 시험료로 지출됐다. 예전과 다른 점은 응시자수 급증 외에도 대학 입학 시 가산점을 받기 위한 중고생과 회사에 자신의 영어능력을 입증하려는 직장인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액수는 어디까지나 국내시장에 한정된 것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유행을 타고 있는 장 단기 해외연수 비용도 포함시켜 범위를 외국으로까지 넓힐 경

우, 총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여행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보통 3주에 300~450만 원 짜리 영어 연수를 떠나는 학생과 일반인이 쏟아붓는 비용만도 한해 1,000억에 육박한다(한국일보, 2001. 10. 23. 34면).

이제 한국에서 국가권력의 선도아래 공적 영역 및 사적 영역 모두에서 영어는 권력 지배적 언어로의 위상을 확고하게 확보했다. 한국어는 탈-권력지배적 언어로만 머물 것인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의 이론을 빌리면, 사회체계(social system)에서 권력 지배적 언어로 의사소통의 망을 장악한 영어가, 사회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내적 식민지화과정에 따라 이제 바야흐로 생활세계까지 침투하여 체계위기에 더하여 정체성 위기까지 촉발하고 있다. 한국어의 위기, 아니 한국인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공격에 대해 비판적 지식인, 작가, 담론 종사자들이 언어전쟁을 선전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5. 맺음말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려면 높은 문화의 힘이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문화의 힘을 지니기 위해서는 한국어 사수가 지름길이다. 이제, 한국어가 다국적군인 영어의 총 공세에 맞서 수세에서 공세로 전쟁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으로 정부관료가 아닌 비판적이고 유기적인 지식인들이 선봉을 서야 하고, 전투양상은 생활세계의 보루를 축으로 하는 진지 전을 기본전술로 하면서, 사회운동이라는 기동 전을 병행해야 한다.

기본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정보화라는 대세를 영어와 같이 타면서 한국말을 이해하는 운영체제를 가진 컴퓨터를 개발하는 문화산업을 키우는 방안이 있고, 단기적으론 현행 공교육에서의 영어 교육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독해와 문법 위주에서 탈피해 살아 있는 현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영어 교사들을 양성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시험용 영어공부와 획일적이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영어능력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어 대 영어의 언어전쟁의 최종적 승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알아듣는 컴퓨터를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어 정보화는 개인 기업의 투자보다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범부처적으로 대처할 과제이다. 고로 각 부처사이의 의견차이를 조정하고, 한국어 정보화를 총괄할 기구가 있

어야 한다.

한국어 정보화는 정부만의 일도 아니다. 민간기업의 미래도 한국어 정보화의 성패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도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정부와 산업체, 대학, 연구소를 묶어 컨소시엄을 형성해야 한다.

한국어 정보화는 한국어의 현대화이기도 하다. 이는 세종대왕이 550여 년 전에 손수 이룬 훈민정음 창제와 맞먹는 범국가적 문화사업이다. 세종대왕이 지금 살아 있다면, 아마 한국어를 알아듣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만드시고, 다음과 같이 그 뜻을 밝히셨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말이 영어와 달라서, 영어를 바탕으로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과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도, 마침내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 사정을 딱히 여겨, 새로 한국어를 알아듣는 컴퓨터를 만드니, 누구나 쉽게 익혀서 날로 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컴퓨터판 훈민정음 서문)

인용 문헌

- Barthes, Roland. *The Rustle of Language*.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Lakoff, Robin Tolmach. *Language War*. N.Y.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 로데릭, 릭 (Rick Roderick). 『하버마스의 사회사상』(*Habermas and the Foundations of Critical Theory*). 김문조 역. 서울: 탐구당, 1992.
- 고길섭. 『우리시대의 언어게임』. 서울: 토담, 1995.
- 복거일. 『국제어시대의 민족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 이병혁. 『한국사회와 언어사회학』. 서울: 나남, 1993.
- 김종락. 「토착어의 소멸」. 『녹색평론』통권 제58호. 대구: 녹색 평론사, 2001.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 제국주의” 제20회 국제학술연구발표회. 2001. 11. 10.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2001학년도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
- 중앙일보. 2001. 9. 15.
- 한국일보. 2001. 5. 18.
- 한국일보. 2001. 10. 23.

[Abstract]

The War of Languages: Korean versus English

Byung-hyuk Lee
(University of Seoul)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oday mean the world wide spread of the information made by America, the American mode of thinking, the American way of life, and the English language based on the world wide information network led by America.

Under this worldly currents, all the Korean wish to learn English. Now English turns to be the essential means to survival in Korea.

In this article, we try to interpret this blindly pursuit of English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ar of languages. For this purpose, we begin to examine the position of English in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linguistic imperialism. Next, we review the linguistic reality of South Korea penetrated by English from the perspective of officialization of English in Korea. Finally, we propose to modernize and informatize Korean to fight against the penetration of English into Korean culture. It depends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development of the computer system operated by Korean.